

두 달 전 월례발표회에서 ‘지성사’란 용어를 사용하여 불충분한 이해 혹은 오해가 촉발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 ‘지성사’란 말을 쓴 이유는 최근 학계 일부에서 점차 통용되는 추세에 있고, 아젠다에서 이미 사용했던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사상사’란 용어로 바꾸는 한편 보다 분명하게 정의하면서, 통일인문학에서 사상사 연구의 의의와 연구지점들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문사철 통합연구의 한 사례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1. 사상사의 의미와 사상사 연구의 의의

1) 사상사의 의미

* 사상사(the history of thought)에서 말하는 사상의 의미는 일반적, 사전적 규정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 심리학, 논리학, 인식론에서 사상(Gedanke, thought)은 사고 작용의 결과 생겨난 사고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사고 작용과 대비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사상사의 사상’은 철학, 문학 등 고급문화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사고 작용의 결과적 내용’만이 아니라, 생활정서, 일상적 태도와 의견, 인생관, 나아가 철학과 같은 추상적 이론 등 다양한 층위를 포괄하는 다의적인 의미를 지닌다. 요컨대 ‘사상사의 사상’은 넓은 의미에서 당대의 생활상의 실감으로부터 추상적 이론에 이르는 층위를 포괄하는 피라미드적 성층(成層) 전체를 지칭한다. 정치사상, 종교사상 등의 표현에서 나타나는 협의의 사상은 피라미드적 성층의 중간에 해당한다. 광의든 협의든, 사상은 단순한 이론적 정관(靜觀), 즉 ‘테오리아(theoria)’을 넘어 실천적 태도와 지향을 아우르는 의미를 지닌다.

* ‘관념사 (the history of ideas)’나 ‘지성사(intellectual history)’ 대신 ‘사상사’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처럼 넓은 의미의 사상개념이 지닌 다의적이고 경계가 불확정적인 성격 때문이다. ‘지성’이나 ‘관념’은 생활인의 믿음과 태도보다는 몇몇 탁월한 사상가의 체계적 이론과 관련되지만, 언급했듯이 사상이란 말 속에 내포된 경계의 불확정성은 당대의 구체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활감정과 의식 전반을 포괄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생활인들의 구체적 체험과 삶의 방식을 당대의 시대적 사회적 관련성 속에서 연구하는 구술사도 피라미드적 성층의 저변에 해당하는 저층위 사상사로 볼 수 있다. 물론 철학사도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위치하는 고층위 사상사라 할 수 있다. 철학을 이성적 진리탐구로 제한하여 실천적, 평가적 신념인 사상과 준별하려는 시각도 있으나, 봉우리가 높은 것은 밀받침되는 넓은 산록을 연상케 하듯 철학은 인간의 생활상의 정서 및 신조를 떠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다 이론적인 사상의 결정체를 원리적 수준에서 다루는 것일 뿐이다.

* 그러나 저층위든 고층위든 사상사의 사상사다운 특징은 역사적 상황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사상의 변화를 탐구하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사상사는 역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사상 자체의 변천과정에 주목하는 학설사(the history of doctrine)나 관념사와 다르다. 사상사는 특정 시대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사상들의 존재방식과 상호연관 그리고 사상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특징을 지닌다. 달리 말해 사상사는 특정한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와 사상적 대응을 종합적이고 유기적 관계 속에서 고찰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사상사 연구의 의의와 관점

* 20세기 한반도 사상사를 연구하는 근본 목적은 일반적으로 말해 한반도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의 사상의 궤적을 주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한반도 사람밖에 없다. 사상사 연구의 의미는 바로 우리 스스로를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20세기 한반도 사상사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미래에 대해 전망할 수 있는 안목과 인식능력을 갖추는 기초를 제공한다. 왜냐 하면 사상사 연구를 통해 우리가 사는 현대를 역사적으로 대상화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사상을 낯설게 만드는 한편, 역사로서의 현대가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가를 자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20세기 한반도 사상사는 관점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접근방식이 가능하다. 사상적 전통이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 의해 항상 새롭게 구성되는 유동적인 것이므로, 그 어떤 사상사든 현재의 문제의식 속에서 조명되고 평가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상사 연구에서 관점의 중요성은 사상사 연구의 대상이 불가피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문화활동 전반을 연구대상으로 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선택이 불가피하다. 선택은 특정 전문분야의 영역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점과 강조점의 문제다. 따라서 통일인문학의 문제의식(혹은 관점과 강조점)과 관련시켜 볼 때 <분단극복의 관점에서 본 20세기 한반도 사상사>가 주된 연구테마가 될 것이다.

2. 통일인문학과 관련된 사상사 연구의 지점들

1) 일단, <분단극복의 관점에서 본 20세기 한반도 사상사>를, 분단을 사유하고 통일의 의의와 가치지향을 제시하기 위해 분단과 통일을 단순히 남북 체제 이념 대립이라는 협소한 측면이 아니라 한반도인의 역사적 체험이라는 보다 폭 넓은 측면에 기반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규정해 본다. 20세기 한반도에서 일어난 역사 체험, 즉 서양문명의 유입과 정체성의 혼돈 체험, 식민지 체험, 분단과 전쟁 체험 등을 이해하기 위해, “한반도인의 사상의 여정”이라는 역사적 시각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역사적 체험을 사상의 궤적으로 통해 그려내는 시각은 남북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라는 일면적 해석틀을 극복하고, 사유와 성찰의 축을 다양화시키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시각은 분단극복의 인식론적 틀과 가치지향을 단순히 인권이나 생태가치 등 추상적 규범이 아니라 지난 100년 동안 한반도인의 역사적 체험에 기반하여 이끌어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분단극복의 관점에서 본 20세기 한반도 사상사 연구는 통일인문학의 지향 자체와 밀접히 맞닿아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인문학에서 사상사 연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과제가 아니라 통일인문학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다.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사례으로써 20세기 한반도인이 겪은 역사적 체험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는 한편, 일제강점기와 분단시대의 사상사적인 연속성 연구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주로 거시적인 측면만)

2) 무엇보다도 20세기 한반도인의 체험을 전통과 근대의 습합(갈등과 공존, 접합)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관점이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서양제국주의에 의한 이른바 서세동점과 일제의 강점이라는 비극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물결 속에 전통적인 유·불·도와 그 속에 융해되어 있던 사고방식과 태도 등 인간의 전반적인 삶의 방식은 큰 충격과 함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사상사적 맥락에서 볼 때, 20세기 한반도 근현대사를 지배하는 근본상황은 동서 문명이 배척과 갈등 그리고 공존과 만남 등 다양한 형태로 뒤섞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점에 있다. 오늘날 한반도의 삶의 방식 속에는 동서의 문화적 유산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동서 문명이 합류한 근대체험은 지난 한 세기에 걸쳐 진행되어왔고, 이제 서양문물 수용 이전의 문화전통(전통1=유불도)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전통(전통2=전통1+근대)을 형성하고 있다.

기독교와 동양종교의 조화(함석헌, 유영모),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의 융합(박종홍, 고희곤, 김형효) 등 다양한 과제가 있을 것이지만, 분단과 통일과 관련하여 중요한 고찰대상은 유교전통이라 여겨진다. 북의 주체사상은 유교전통과 맑스주의의 습합이며 남의 근대화 역시 유교적 근대화에 가깝다. 따라서 분단의 사상적 지도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으로 단순화시킬 수 없다. 하버마스의 용어를 빌면, 남북사회의 정치 경제제도적 측면(체계)에서 유교는 힘을 상실했지만, 일상생활의 관습과 가치관, 인생관의 측면(생활세계)에서는 남북 주민의 심성 속에 살아 있으며, 가족관계나 인간관계를 통해 계속적으로 전수되고 있다. 한반도의 불자들은 유교적 불자들이며, 그리스도인들 역시 유교적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의 역사적 삶의 양식을 규정해왔던 유교 전통이라는 문화적 잠재력을 분단 극복의 사유와 실천을 위해 어떻게 사상사적으로 고찰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늘날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3)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 대립의 체험을 사상사적 맥락에서 새롭게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는 남북 분단이 단순한 이념적 이질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가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행하면서 생겨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대안이 충돌하거나 선택된 결과로 이해하는 한편, 서로 다른 대안을 역사적으로 상대화시켜 이해하는 관점을 말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가설적 관점들이 가능하다.

우선,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근대를 성취하는 여러 가지 길 중의 하나로 보는 근대화 담론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남한에서의 자본주의 실험이건,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실험이건, 나름의 근대성을 성취하기 위한 분투적 과정의 전개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남북의 이데올로기 차이는 부차화되고 그 보다는 근대라는 틀 속에서 국가주의, 개발독재 등 공통점이 부각된다.

다음으로 남북 대립을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보는 관점이 가능하다. 지난 역사를 통해 볼 때 한민족의 세계와의 관계방식은 주체성(主體性)과 개방성(開放性)의 두 축이 이어져왔다. 이 때 분단은 이데올로기적인 냉전구조라기 보다는 한민족의 전통적 생존전략의 두 축이 남북의 선택으로 각각 다르게 외화되어 나타난 측면으로 이해된다. 이럴 경우 이 두 축의 대립을 절대화하기보다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는 지혜가 부각된다.

끝으로 남북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역사적으로 상대화시켜보는 관점도 가능하다. 자본주의적 통일인지 사회주의적 통일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근본주의는 실천적 차원에서 적대 내지 전쟁 가능성을 함축할 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서로 한계가 있는 역사적 체제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자본주의의 장점과 사회주의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노력, 양 체제를 인정하는 공존의 통일방식은 이른바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수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근대극복의 문명론적 의미맥락을 지닌다. 이 때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는 상대적 보편성을 지닌, 서구근대문명의 쌍생아이며, 이 양자를 종합하는 통일의 가치지향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 이념을 단순히 극복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문명적 비전을 지닌다.

4) 분단과 통일에 대한 사유를 분단시대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와 분단시대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사상사적 차원에서 확인하는 작업이다. 분단 시대를 성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연구과제가 바로 분단의 사상적 근원을 추적하는 일이다. 이는 분단체제 형성과 체제 대립의 역사적 연원을 해명하는 문제로, 분단 이질화의 사상적 근원을 계보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식민시기부터 이데올로기적인 분열과 대립이 상당 정도로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분열과 대립은 분단과 더불어 보다 왜곡된 방식으로 강화되었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에 여러 사상들이 단순히 어떤 방식으로 수용, 해석되었는가를 넘어서 분단 이후 남북한의 사상적 분기(分岐)과정에서 한 역할, 분단의 맹아가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에서 마련·강화되는 과정을 사상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예컨대 일제 강점기에서 전

개된 철학사상 혹은 문학조류 가운데 오늘날까지 현존하며 영향력 있는 사상과 계보학적으로 맞닿아 있는 주요 사상들을 조사, 정리하는 연구 등을 말한다. 특히 분단 이후 본격화된 이념 대립의 선행 사례로서 맑스주의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논쟁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 사상사연구와 통합연구의 연관

1) 통일인문학은 학제적 통합 연구의 성격을 지니며, 통합연구는 엄격한 체계와 대상을 지닌 방법론 수립이 아니라 큰 틀을 공유하면서도(통일에 대한 문제의식과 핵심 개념 등 인식론적 전제의 공유) 개별분과의 특징을 살리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에 그 특징이 있다. 즉 “녹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방법론 자체가 녹색이 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통일인문학의 방법론 역시 ‘소통과 치유 그리고 통합’이라는 통일인문학의 지향을 지닌다. 그런데 사상사 연구는 이러한 소통과 통합의 방법론적 특성을 구현하고 있다. 당대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사상의 여러 층위(생활 정서-생활문화(인생관·가치관)-추상적인 이론)를 아우르는 사상사 연구의 특성이 바로 개별분과들의 소통과 통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2) 지난 월례발표회에서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통합연구의 상>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그런데 사상사 중심의 통합연구 경험이 전무한 관계로, 이상의 논지 외에는 구체적 상을 떠올릴 수 없다. 보다 핵심적인 문제는 통일인문학 연구가 그 성격상 사상사 연구의 형태를 띠 수밖에 없으며, 다만 통일인문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자의 연구가 사상사적 작업이란 점을 의식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1과 2에서 간단하게 논한 핵심은 통일인문학의 연구가 곧 사상사적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부각한 데 있다. 사상사 연구의 목적은 오늘의 현실 및 삶의 방식을 있게 한 역사적 연원을 밝힘으로써 실천적 지침을 얻는 데 있다. 과거의 역사를 다루면서도 현재적 관심에 입각해 있으며, 또 현재적 관점은 미래적 기획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사상사 연구의 시간의식은 미래-현재-과거로 흐른다. 이러한 목적의식 혹은 시간의식이 있다면 특정 시대(20세기 혹은 분단시대 혹은 50년대)의 특정 주제(아비투스, 생활문화 등)를 다루는 모든 연구는 사상사 연구라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상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일반론으로 건너뛰는 것이 마음에 걸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의 경우를 예로 들어 통합연구의 필요성을 대신한다.

* 심포지엄의 준비 기간이 촉박하여 생활문화팀과 사상이념팀의 통합연구가 없었다. 통합연구는 앞으로 있을 심포지엄 발표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꾸려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심포지엄 횟수에 따라 년 3회의 통합연구가 정례화될 것이다.

* 분단의 아비투스란 개념은 통일인문학의 핵심적 지향과 특성을 드러내는 말인데, 따라서 고려되어 마땅한 아비투스와 생활문화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었다. 통합연구가 이루어졌을 경우 전공의 특성을 살려 통일인문학의 지향과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보다 풍부한 논의들이 있었을 것이다. 예컨대

- 생활문화는 아비투스보다 개념 범위가 넓다. 아비투스는 생활문화 가운데서도 상징폭력을 통해 내면화된 무의식적 성향체계만을 의미한다.

- 혹은 아비투스는 구조화된 구조인 동시에 구조화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지배집단의 내면화 시도가 전적으로 성공하지 않거나 계급 계층별로 다를 경우도 있는데, 북한 지도부의 집단주의 시도에 대한 각 계급·계층별 내면적 동의 여부 문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숙고가 필요하다.

- 혹은 분단의 아비투스가 북한만의 집단주의가 아니라 이와 성격을 달리하는 남한의 집단주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남북의 집단주의가 갖는 공통점이나 차이점 등을 밝힐 필요가 있다. 등

[토론문]

통일인문학과 사상사 연구의 필요성

전영선(생활문화팀)

▶ ‘지성사’와 ‘사상사’

지성사 연구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보시고, 사상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상사 연구의 중요성과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두고 ‘오해’를 해 보았더니 지성사는 선별적 즉 무엇인가 걸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들었습니다. 아미도 ‘지성’이라는 용어가 ‘반지성’이라는 상대 개념이 있고, 그 사이를 가르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상사’는 총괄하고, 망라한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1. 사상사의 의미와 사상사 연구의 의의

1) 사상사의 의미

사상사 연구의 의미를 “ ‘사상사의 사상’은 철학, 문학 등 고급문화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사고 작용의 결과적 내용’만이 아니라, 생활정서, 일상적 태도와 의견, 인생관, 나아가 철학과 같은 추상적 이론 등 다양한 층위를 포괄하는 다의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습니다.

- 혹은 시대적 사상과 생활은 작용과 반작용처럼 상호적으로 영향을 받고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연역과 귀납의 접근 차이는 아닐런지요.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보고, 생활을 들여다보는 것과 생활을 들여다보면서 공통을 찾아내는 작업의 차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작업은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일의 선후나 비중은 있다고 봅니다.

2) 사상사 연구의 의의와 관점

“사상사 연구의 의미는 바로 우리 스스로를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20세기 한반도 사상사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미래에 대해 전망할 수 있는 안목과 인식능력을 갖추는 기초를 제공한다. 왜냐 하면 사상사 연구를 통해 우리가 사는 현대를 역사적으로 대상화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사상을 낯설게 만드는 한편, 역사로서의 현대가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가를 자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통일인문학의 역할의 하나로서 통일인문학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비전은 학문적 비전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과거의 흐름 속에서 진정성 있는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연구로서 사상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통일시대 조감도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정구 교수 ‘아리랑 연방제 통일방안’

2. 통일인문학과 관련된 사상사 연구의 지점들

이병수 선생님이 제기하신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분단현실과 직접 맞닿아 있는 역사적 문제를 연구과제로 제기한 것이나 근현대사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들어온 사상적 혼재, 혼류, 그 속에서도 굳건하게 영향력을 발휘한 유교적 영향력 등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

교적 정당한 가치가 ‘유교적 민주주의’,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 ‘따뜻한 심장을 가진 자본주의’ 등의 대안으로서 문제의식과 논의를 구체화 할 여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고, 그 원인의 하나로서 ‘건국의 부성(父性)’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이건 건국(建國)이 갖는 상징성과 절대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북 사이에는 건국의 상이 없습니다.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건국의 상이 아니었습니다. 남북이 공감할 수 있는 ‘광복의 아버지’, ‘조국 통일의 아버지’ 상이 없기 때문에 남북이 공히 본 받아야 할 정신적 아버지가 없는 것입니다. 통일 독일의 경우 정신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사상적 기원이 있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전통적 가치는 유교적이든 민중적이든 크게 훼손되거나 부정되었고, 새로운 사상과 이념은 홍수처럼 밀려들면서 한편으로 배척되고, 한편으로 정착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혼재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신도는 이미 우리 국민보다 많고, 역술원, 무속인들의 숫자도 엄청납니다. 설, 추석과 함께 발렌타인데이, 빼베로데이가 전국민적 명절이 되었고 일상화 되었습니다. 한편에서 전쟁이 갖는 비극과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한편에서 전쟁은 게임을 통해 우월함을 과시하는 유희로 향유되고 있습니다. 군시절 구타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39살의 남자가 자살했던 현실은 폭력의 공포와 정신적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 저는 사상이념 팀의 고민에 동의하면서도 관심과 역할은 조금 층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서문예, 생활문화팀은 근현대사를 횡단하는 사상의 흐름 집어낸다면 그 아래에서 생활 속에 녹아든 일상의 문제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완과 소통의 문제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 연구과제의 방향에 맞는, 고민의 수준에 맞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 지도부의 집단주의 시도에 대한 각 계급·계층별 내면적 동의 여부 문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속고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문제는 확장한다면 가령 ‘북한 사회의 지배적 인식으로서 유교성’이라는 주제를 녹여낼 수 있는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문제의식으로 담아두고, 관련된 협동 연구(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모아지는 공동 연구와는 다른 협력적 관계의 공동 연구)로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떨지요.

통일인문학과 구술조사

김예선(정서문예팀)

1. 왜 구술조사인가?

구술조사는 말 그대로 구술(口述, oral)로 이루어지는 조사 행위를 의미한다. 구술조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화자)과 말을 듣는 사람(청자·조사자)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오래 전부터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구술에 의존하는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을 떠올려 본다면, 구술조사의 중요성과 유효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이다.

‘가장 긴요한 것은 구술로 하는 말이며, 구술로 하는 말이 모든 말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근거를 떠받치고 있다는 소쉬르의 말처럼 구술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구술에 대한 인식은 학계뿐 아니라, 대중매체로까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삶의 경험과 기억에 근거한 구술은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술 자료는 다방면에서 두루 활용될 가능성을 지닌다.

2. 구술조사 현황

구술조사는 인류학, 역사학, 심리학, 사회학, 민속학, 여성학, 문학(문학치료학)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왔다. 그 가운데 문학, 특히 구비문학 분야에서의 구술조사를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구비문학에서는 『한국구비문학대계』 이후로 구전담화를 조사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 기억에서 사라지거나 점차 사라지고 있는 구전담화들을 현지조사를 통하여 발굴하고, 보존하는 연구자들의 작업은 이제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에 이르렀다. 반면에 경험에 근거한 구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문학 영역에서 특정한 삶의 경험과 기억에 근거한 구술조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구술조사는 인류학이나 민속학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삶의 복원’ 혹은 ‘아래로부터의 역사’라는 차원에서 구술조사를 진행하고 보고한 사례들로, 특정 지역이나 역사적 사건 그리고 특수한 직업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구술조사는 소외되었던 주체(개인·계층·지역)의 목소리를 되살려내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구술조사를 통해 가까운 과거의 일상적인 모습을 기록하여 민중생활사로서 새로운 역사를 구축한 시도¹⁾가 보고되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노력과 시도들이 대체로 역사학의 관점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학에서 지니는 학술적 가치와 의의는 상당하지만 여타의 학문 영역에서 지니는 자료적 가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문학 영역에서 해당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야기로서의 특징을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구술조사는 학제간 조사·연구가 수월한 열린 형태의 조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구술조사는 대체로 산발적이고 국지적인 것으로,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구술조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1) 다음의 결과물이 여기에 속한다. (이균옥 외, 『20세기 한국민중의 구술자서전』 1-6, 2005, 소화;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편, 『한국민중구술열전』 1-15, 2005, 논빛.)

3. 정보 vs 이야기

‘정보’와 ‘이야기’는 구술조사를 지탱하는 커다란 두 축에 해당한다. 이제까지의 구술조사는 대체로 정보 혹은 이야기 가운데 어느 하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보에 초점을 맞춘 구술조사의 경우에는 자료의 사실성이 강조되었고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구술조사의 경우에는 자료의 문학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질문지에 기초해서 사실 정보 차원에서 초점화 하는 것과 이야기로 수렴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발터벤야민의 말처럼 ‘사실의 동일성이 요구되는 것은 정보의 차원이며, 의미의 진정성이 요구되는 것은 이야기의 차원’이지만, 정보와 이야기에는 공존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무엇보다도 구술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텍스트의 가치에 주목했을 때, 정보와 이야기는 공존해야 마땅하다. 그 공존의 장은 다양한 정보를 함축하고 있는 이야기 텍스트에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형태로 집약된 텍스트는 삶의 경험을 전형적으로 집약하는 한편 생활 감정을 보편적으로 함축하는 것으로, 한 개인은 물론 한 사회의 생활사를 온전하고도 총체적인 형태로 반영할 수 있다. 이야기를 축으로 하는 구술조사 자료는 객관적 정보 중심의 기존 자료와는 다른 차원의 가치들을 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1>

문 : 가족 관계를 보니 딸이 혼자라 사랑을 많이 받았겠네요?

답 : 아니요. 엄마는 오빠를 좋아하고 아빠는 동생을 좋아해서 저는 외로웠어요. 가운데 끼어서요.

문 : 태국 부모들은 남자 아이를 더 좋아하나 보군요?

답 : 네. 엄마들은 아들을 낳아야 천당에 간다고 믿어요.

문 : 그럼 딸만 있는 집은 거의 없겠네요?

답 : 있기는 해요. 옆 집 아줌마는 딸이 7명인데도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요. 태국 아들은 스무 살이 되면 머리를 깎고 사원에 들어가요.

문 : 몇 년 있어야 하나요?

답 : 몇 년은 아니구요. 요즘은 바빠서 몇 개월, 몇 주일 정도 있다가 나와요. 의무는 아니고 예전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²⁾

<자료2>

열입곱 살에 시집을 때 아이구 그 북후면에서 이까지 오는데 욕십리거든. 욕십린데 가매타고 왔단 말이라. …… 하루만에 오는데 …… 얼마나 멀고 멀고도 …… 여게 오이께 밤이라. 얼마나 오랜지 몰래. …… 혼례는 친정 쪽에서 올리고 오니까. 그 날 바로 혼례식 올리고 일찍 따닌디 말이라. …… 옛날에는 친정도 잘 살고 모든 게 잘 살고 이래만 묵신행이라꼬 있거등요. …… 없는 집에서는 부담스러워서 못하지. 없으니까 못하지. 그래 바로 보내지 뭐.³⁾

<자료1>과 <자료2>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①구술조사의 방법과 ②채록 정리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1>의 경우 구술조사는 문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자로 고정된 구술은 발화자의 입말 그대로가 아니라 채록자의 언어로 교정되어 있다. 반면 <자료2>의 경우 구술조사는 발화자의 이야기 형태로 수렴되고 있으며, 채록 형태 역시 입말 그대로 옮겨진 것이다. 전체 구술조사 자료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둘의 자료적 가치는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정보 수집 차원에서 이루어진 구술조사가 <자료1>이라면, <자료2>는 발화자의 구체적인 장면 구현방식으로 구현된 이야기 자료이면서 동시에 경상도 지역에서 행해졌던 도신행에 대한 정보까지도 담아내고 있다.

구술조사에 있어 이야기는 이야기 나름으로 중요한 것이고, 정보는 정보 나름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 둘을 아우를 수 있는 구술조사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역음, 『구술생애사1. 한국사회의 소수자들 : 결혼이민자』, 경진, 2009.

3) 천혜숙, 「농촌여성 생애담의 주제와 생애인식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4. 통일인문학, 그 새로운 구술조사 방법론

구술조사 방법론은 구술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학문 영역만큼이나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학문 영역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조사 방법에도 서로 다른 지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수행하게 되는 구술조사의 경우 기존의 방법론을 토대로 하되, 통일인문학의 정체성에 맞는 나름의 방법론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거칠게 몇몇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술조사의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진행되는 구술조사의 경우, 본격적인 조사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단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구술조사라면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구술조사를 위해서는 단계별 조사가 필수적이다. 즉, 조사자와 구술자 사이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난 뒤에 본격적인 조사와 심화 조사 단계로의 점진적인 구술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통일인문학 구술조사를 위한 질문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타의 학문 영역에서 실제로 구술조사에 활용되는 질문지 유형⁴⁾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지는 대체로 지나친 나열식으로, 구술조사에서의 효용 가치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통일인문학 구술조사에 적합하도록 유형화된 질문지 몇몇을 마련한다면, 통일인문학 구술조사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조사 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전제되는 구술조사여야 한다.

이제까지의 구술조사는 조사 대상자 보다는 자료의 소중함에 중점을 두었다. 이 자료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이다. 기존의 구술조사가 조사된 결과물의 소중함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통일인문학 구술조사는 그 지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술자의 삶의 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구술조사는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인문학 구술조사에서는 조사 현장에 얽힌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구술자의 삶에 대해 다각적이며 입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구술조사는 단순한 조사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생활도구, 기록문서, 지역신문, 역사자료 등을 포괄하여 체계적인 정리로 갈무리하는 것까지를 그 범주로 삼아야 한다.

지난 국제학술대회에서 박한식 선생님께서는 남북이 서로의 '제도'에 대해 아는 것보다는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하며, 전형적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북한 사람 알기 운동, 남한 사람 알기 운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이셨다. 남북의 전형적인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일은 통일인문학의 근간을 이룸과 동시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실천적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구술조사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통일인문학에서 구술조사의 방법론을 마련하고 다듬어 실현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4) 그 가운데 하나의 일부를 예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성장 과정의 문화적 배경

1. 성장한 마을 : 위치, 호수, 인구 구성(반상 구분과 주거지 위치)
2. 성장기 마을의 문화적 분위기(그 분위기에 대한 기억, 평가)
3. 우리집 분위기 : 이웃집 분위기와 차이
4. 가정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항목(가훈), 그리고 강조한 사람
5. 유년시절 죽음에 대한 경험 : 죽음의 목적, 죽음 체험 상황과 깨달음
6. 마을 내에서의 문화 체험 : 당산제, 정월 보름, 풍물, 노래판, 풍장굿(백중), 추석경험, 사랑방 이야기관, 당골굿 보기, 비손, 노래패 활동, 교회 활동, 기타
7. 외부 문화 경험 : 사당패, 소리패, 걸립패, 가설(나이롱)극장, 영화관 가기
8. 객지 생활 : 유학, 노동자 생활, 머슴살이, 처가살이, 징용, 입산, 군 입대, 여행
9. 문화 요소 : 자전거, 신문, 전축, 라디오, 텔레비전, 재봉틀 접촉
10. 놀이 공간 : 주변 지역(당산, 뒷산), 산, 집안

□ 발표문의 구성

1. 왜 구술조사인가?

구술조사는 구술로 이루어지는 조사행위. 그 자체로서 의미. 자료적 가치와 다방면에서 두루 활용될 가능성.

2. 구술조사 현황

인류학, 역사학, 심리학, 사회학, 민소각, 여성학, 문학(문학치료학) 분야에서 접근.

-문학 : 사라지고 있는 구전담화 현지조사, 발굴 보전

-인류학, 민속학 : 아래로부터의 역사,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되살려내는 성과

-역사학 : 민중생활사라는 새로운 역사연구방법론 구축, 이야기의 사장

국지적이고 산발적,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구술조사의 필요성

3. 정보 vs 이야기

역사학은 주로 정보, 문학에서는 이야기에 초점. 이 둘을 아우를 수 있는 구술조사 방법론 필요.

4. 통일인문학, 그 새로운 구술조사 방법론

통일인문학연구단의 정체성에 맞는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1) 구술조사의 단계설정 2) 통일인문학 구술조사를 위한 질문지 마련 3) 구술자의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배려 4)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구술조사

□ 토론문

1. 왜 구술조사인가에 대한 재고 필요. 왜 우리에게 구술조사가 필요한가?

최근 “구술조사의 봄”. 개인과 학술, 시민단체의 활동에 그치던 구술이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행. 모든 연구가 구술연구방법론 채택. 그러나 아직 현재 구술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주관적 경험적 축적이 이론적, 객관적 검토단계로 나아가고 있지는 못한 상태. 외국의 사례도 소개, 그러나 어떻게 한국적인 특성(사람, 경험), 통일인문학에 맞는 구술조사를 진행할 것인가 고민.

2. 구술조사 현황

문헌자료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실증적인 정보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구술,

최근 사회적 약자, 소수자, 하층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아래로부터의 역사, 기록을 진유한 지배계급의 위로부터의 역사에 대응. 구체적인 개인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구체적인 개인의 삶에서 출발하여 국가, 민족 중심의 거대서사로 구성된 공식 기억에 대한 대항기억 구성. 작고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 민중을 주체로 선언하면서도 그들의 구체적 삶을 도외시했던 민중사학 지양. 사실의 객관적 인식을 추구하는 근대 학문에 발본적으로 도전. 과거의 경험이 어떻게 현재에 구성, 재현되는가에 주목. 이는 역사서술의 주체로 민중을 불러내는 과정.

3. 정보인가, 이야기인가

처음에는 사실 확인과 이야기 듣기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그들이 왜 그렇게 기억하는가?

-기억의 역사에 대해서 보다 주목해야. 현재의 기억에 담긴 주관적 요소 고려. 사실과 회고 사이의 균열. 사실과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억한다는 것은 사회적 억압기제가 작동한다는 이야기.

-구술을 비판적으로 독해해야. 계급 계층에 따라 진술방식의 차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기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경험의 실재성과 구성성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필요.

-구술자의 경험을 존중하면서도 낭만화 경계, 객관성 유지. 그들이 빠져있는 합리화 코드를 독해해야.

-구술채록과 구술연구의 분리, 채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4. 통일인문학, 그 새로운 구술조사 방법론

-구술조사에 대한 밑그림, 기획안이 필요하다.

구술의 목표와 방법론, 과정(로드맵, 매뉴얼)을 포함

-구술지도 만들기.

개인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개인, 사회구조 속의 개인. 이는 보편과 특수성의 문제, 시대상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객관화를 위해서는 그 사람이 위치하는 지점을 포착해야 한다. 그는 어느 지역, 어느 계층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가? 이는 구술조사를 어떻게 연구로 확장시킬 것인가? 전형성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통일인문학 방법론의 모색

김진환 (HK연구교수, 생활문화팀)

2010. 7. 28

1. 익숙하지 않은 것들과 친해지기

- 지난 몇 달 간 ‘아카이빙’, ‘아비투스’, ‘트라우마’ 같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통일인문학연구단(이하 연구단) 내에서 ‘빠르게’, 그리고 ‘아비투스’와 ‘자기서사’의 관계에 대한 고민까지 등장한 것처럼 ‘창조적으로’ 확산되어 왔음.
- 이러한 사실이 입증하듯, 기존 개념이나 이론의 공유, 또는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의 창안은 현재 몇 개 학문분과가 결합된 연구단 안에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달성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됨.
- 이에 반해 개별적인 학문분과를 넘어서는, 곧 각 학문분과가 ‘선호하는’ 방법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연구단을 구성하는 학문분과가 모두 선호하는 공통의 연구방법’(=통일인문학 방법론)을 모색하는 일은 난관이 예상됨.
- 근대 이후 학문분과들이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개별 분과의 정체성을 다져왔기 때문에, 연구단 안에서도 이러한 ‘차별화 노력’의 관성을 극복하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님.
- 연구단의 연구가 공통의 방법론을 토대로 진전될 때 연구단 고유의 개념이나 이론의 창안·확산, 궁극적으로는 방법론과 이론의 합일체인 ‘통일인문학’ 정립도 용이할 것임.
- 결론적으로, ‘통일인문학 방법론’ 모색을 위한 첫 단계에서 연구단 구성원들이 견지해야 할 원칙은 자신이 몸담아온 학문분과에서 익숙해있던 방법론에 안주하지 않고,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다른 학문분과의 방법론과 친해지려 노력하면서, 각각의 방법론이 지닌 장단점을 서로 짚어내며 최상의 방법론을 마련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

2. 몇 가지 방법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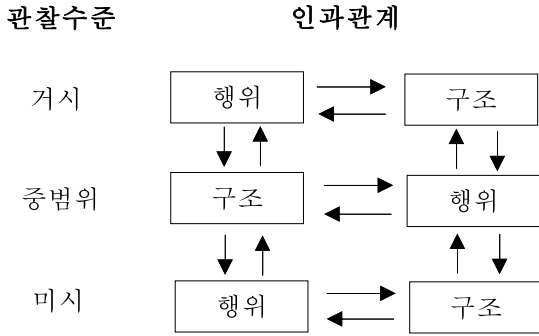
1) 미시-중범위-거시의 지속적 연계

- 행위와 구조: 인간의 ‘행위’는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이고, ‘구조’는 행위의 결과 출현하는 지속성을 갖는 사회적 관계 → 행위는 구조를 낳고, 구조는 행위를 제약한다!
- 행위(구체)와 구조(추상)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인간행위와 사고, 사회구조의 특성 등을 이해하고, 나아가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사회학의 전통적 방법론 중 하나임.
-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은 인간 ‘바깥에’ 존재하며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구조 못지않게, 개별적 인간의 심리와 정서를 특징짓는, 곧 인간 ‘안에’ 존재하는(이 역시 인간 바깥의 구조에 영향을 받았겠지만) 구조의 확인에는 소홀하다는 한계 존재.
- 반면, 개별적인 인간 내면의 구조를 꼼꼼히 드러내는데 장점을 지닌 인문학은, 인간 바깥의 구조적 실체에 대해서는 정교하지 못한 인식을 보여줄 때가 종종 있으며, 이럴 경우 인간 바깥의 구조와 안의 구조의 관계성을 밝혀내는데 한계를 지닐 수 있음.
- 사회과학도 이와 비슷하게 사람들의 ‘개성’에 대한 진지한 관찰을 소홀히 한 채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을,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구조의 특성과 연결시켜 과도하게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강함.

- 따라서, 단순한 구조-행위 연계 방법론이 아니라 미시적(micro) 수준의 구조·행위, 중범위(middle range) 수준의 구조·행위, 거시적(macro) 수준의 구조·행위를 끊임없이 상호 연계시켜보는 습관이 필요함.

<그림> 미시-중범위-거시의 지속적 연계



2)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유용성

- 신제도주의의 핵심은 구제도주의가 흔히 빠졌던 구조결정론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행위가 제도(좀 더 구체화된 구조, 예를 들면 당과 국가의 정책, 법령, 국가기구 등)의 제약을 받지만 동시에 제도 역시 행위에 의해 비로소 현실화 되고 재생산 된다는 점을 강조함.

- ‘역사적 신제도주의’: 역사적으로 형성된 특정 제도의 특성이 특정 현상의 발생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방법론.

-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선택한 연구자들은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다양성’에 주목함으로써 획일화의 오류를 벗어나려 노력함.

- ‘결정적 분기점’은 급격한 제도변화의 시기, 행위자가 제도변화를 추진할 계기를 제공하려는 순간 등으로 규정되며, 이 시기에 행위자의 선택은 해당 사회의 초기에 발생한 사건들에 깊이 배태된(embedded) 선택에서부터 고도의 재량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유용성

① 사회에 대한 국가권력의 영향력이 강력했던(그리고 지금도 강력한) 탓에, 남북 사회 구성원들의 특징적 행위, 사고, 정서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당·국가의 ‘정책사’ 또는 ‘제도사’ 연구 역시 충실하게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줌.

② 정책사, 제도사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앞에서 말한 ‘결정적 분기점’(한국전쟁, 고난의 행군, IMF 등)에 남과 북, 또는 해외의 민족구성원들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로 나아가도록 해 줌.

→ 궁극적으로는 ‘통일’이라는 일종의 ‘제도 격변기’에 남북, 해외의 민족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낄 것인가를 예측하고, 충격과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로 나아가야 할 것임.

3) 적절한 비교 방법의 사용

- 사회학, 인류학 분야에서 주로 발전시켜온 여러 가지 비교 방법들은 거시적 수준에서 보면 남과 북의 사회, 또는 집단들 또는 개인들의 ‘같음’과 ‘다름’을 확인하거나, ‘같음’과 ‘다름’을 낳은 ‘이유’를 밝혀내는 데 유용함.

- 대표적인 비교 방법

① 이론의 유사 증명: 특정 현상에 대한 일반이론의 정립을 목표로, 특정한 이론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설명력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사례를 비교하는 방법.

② 맥락의 대조(해석적 비교): 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개별 사례의 독특한 특성(차이, 개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사례와 비교하는 방법.

“유럽의 봉건제는 일본의 봉건제와의 비교를 통해 좀 더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서구 문명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성직(聖職)에의 경향성이 발전하지 않은 문명과의 비교를 통해 좀 더 분명해질 수 있다”- Reinhard Bendix

③ 인과 분석: 역사적 결과나 유형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밀(John Stuart Mill)의 일치법, 차이법 등을 적용해 두 개 이상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낳은 원인들을 규명하는데 주력하는 방법.

- 비교 방법의 적용가능성:

① 이론의 유사 증명: 독일 통일 과정에서 발전된 사회통합의 이론들을 한반도 실정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타당인가? 주로 소련과 동유럽 사례 연구를 토대로 확립된 사회주의체제의 국가-노동관계에 대한 이론들은 북한의 국가-노동관계를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가? 소련과 동유럽 해체에 대한 많은 설명들은 오늘날 북한체제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② 맥락의 대조: 동서독의 통일노력과 남북한의 통일노력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남한 개인주의 문화와 북한 집단주의 문화의 차이는 무엇인가? 천리마운동과 새마을운동의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의 언어와 서사구조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③ 인과 분석: 동일한 강제이산 경험에도 불구하고 왜 중앙아시아 고려인과 재일 조선인의 민족문제나 통일에 대한 인식은 차이를 보여주는가?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심각한 체제위기에 직면해서도 왜 동유럽과 같은 급격한 체제전환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북한의 개혁·개방 양상이 중국, 베트남의 그것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3. 통일인문학 방법론 모색을 위한 ‘소통’

- 콜로키엄 공간을 적극 활용해 연구단 바깥 방법론 고수(高手)의 견해와 경험을 심층적으로 듣고 토론.

-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한국구술사연구회, 한국비교사회학회 같이 ‘방법론이 강한 연구 집단’을 찾아내고, 이들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필요.

- 2010년 상반기에 자료와 선행연구 검토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했으므로, 하반기에는 방법론만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해보는 것도 바람직함.

통일인문학 방법론의 모색에 대한 논평

박영균(HK교수)

글을 잘 읽고 배웠습니다. 선생님의 견해에 대부분에 동의합니다. 다만, 논평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핵심적인 사항만을 가지고 저의 생각을 피력하겠습니다.

1. 현재의 개별 학문 분과 간의 통합이 어려운 이유가 근대 학문의 분과체계에 기인하며 “각 학문분과가 ‘선호하는’ 방법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연구단을 구성하는 학문분과가 모두 선호하는 공통의 연구방법’(=통일인문학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에 동의하면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갈 것인가”입니다.

1-1. 제 생각으로, 일단 자신의 영역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더욱 심화시켜서 상호 간에 만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에드워드 월슨의 ‘통섭(統攝, consilience)’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물학적 환원론이어서 많은 폐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월슨 이전에 사무엘 휴얼은 ‘jumping together’로 이를 정의합니다. 그것은 ‘손 잡고 함께 뛰기’입니다. 서로 마주잡은 손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잡는 손이며 이 손을 통해서 전달되는 각기 다른 성격과 특성은 서로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T자형 통섭(通攝)이 됩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각기 다른 사람의 손으로부터 전달되는 것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서 T자 ‘-’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I’자형으로 아래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 통일적인 방법론이 수립되어야 그 이후, 구체화될 수 있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법론은 아주 구체적인 연구들,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모여서 합류하는 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가족유사성’처럼 발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의 구성원은 각기 서로 다르며 전적으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코가 닮았지만 어떤 형제들은 귀가 닮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전체적으로 닮아있습니다. 통일인문학의 방법론도 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학파의 형성을 너무 전일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 아닌가 쉽습니다. 아니면 우리 학계의 식민지적 관행 때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학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많은 차이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그 학파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을 벗어나 서로 다르면서 우리를 엮어 주는 매개지점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 이런 점에서 저는 통일적 방법론 정립에 대한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상호적인 역동성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제안하신 다음 심포지엄 주제를 통일인문학의 방법론으로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단순히 어떤 대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수준이 아니라 그 방법론을 통일인문학에 접목시키려는 우리 연구단의 연구작업과 함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어떤 완성된 틀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론과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한 연구들은 제 생각에 끊임없이 상호 작용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저는 선생님이 제안하신 “구조-행위 연계 방법론”과 “미시적(micro) 수준의 구조·행위, 중범위(middle range) 수준의 구조·행위, 거시적(macro) 수준의 구조·행위를 끊임없는 상호 연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보다 쟁점을 명료히 하기 위해 몇 가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2-1. 제가 알기로, 인식론으로나 방법론으로 ‘구조’의 등장은 ‘역사’와 대립적으로 관계하며 ‘행위’는 구조와 대립적으로 관계합니다. 그러나 이 둘의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1-1. 즉, 앞의 ‘구조’와 ‘역사’는 서구지성사에서 구조주의 이전 역사주의와의 대립을 표현합니다. 역사주의는 모든 현재의 공시성을 통시성 속에서 보았습니다. 이 속에서 행위는 역사적 실천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실천은 인식주체의 안과 밖을 구분하며 ‘안’에서 ‘실천’을 찾기 때문에 구조가 ‘실천’에 가하는 제약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구조주의적 사고는 현재의 공시성, 구조 속에서 거꾸로 역사를 추적합니다. 유명한 푸코의 계보학과 고고학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통일인문학의 방법론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의 구조 속에서 과거 사건들, 행위들의 의미가 보다 명료해지기 때문입니다.

2-1-2. 그러나 구조주의는 인식의 독립된 ‘주체’를 해체하지만 구조 안에서 행위자(agent)들의 역동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탈구조주의이며 탈구조주의에서의 문제의식은 구조주의의 연장선상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는 역사주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주의에서의 ‘행위’가 아니며 구조주의 속에서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구조와 행위의 통일적 파악이라는 것도 단순한 이해를 벗어나 더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텍스트, 단순히 글로 쓰여진 텍스트를 벗어나 우리가 읽어야 할 대상을 모두 텍스트라고 한다면 텍스트 해석의 다른 방법론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1-2-1. 이 방법론은 구조의 일관성-체계성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구조 안에서 비껴져 나오는 것, 일탈되고 모순되는 것들, 그 안의 자장 내에서 과열음을 유발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의 계보와 형성사, 또는 그것들의 무의식적 구조를 봅니다. 따라서 일상사에 대한 이해에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그 핵심은 주류담론에 의해 억압된 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 목소리들이 일으키는 과장, 그 목소리 안에서 분열되는 것을 찾고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2-2. 이런 점에서 유사성과 차이에 대한 선생님의 제안을 수용하면서도 더 나아가 보다 문제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코는 유사성이나 유비의 틀을 고전주의적 에피스테메에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성이나 유비가 담음의 구조만을 찾기 때문이며 이외의 것은 그것의 일탈 또는 예외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 차이, 이질성은 그 자체로 서로가 다르거나 이질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담음은 그 자체 주어진 것으로 담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음과 이질성은 역사적으로, 계보학적으로 추적하다보면 닮았지만 그들이 서로 공유하는 어떤 욕망이나 관습, 가치가 다르기도 하고 거꾸로 이질적인 것이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신과 주체유일체제, 남북의 연고주의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분석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인문학의 차이와 공통성이라는 개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공통성과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선생님이 제안하신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 중의 한 부류로 알고 있습니다. 신제도주의에는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저도 통일인문학의 방법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제도 발생의 역사적 특수성과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만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정치학적 방법으로는 괜찮지만 사회문화 및 상징을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통일인문학의 방법론이 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인문학적 사유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3-1. 일단 저는 신제도주의와 마찬가지로 제도주의도 제도를 독립변수로, 개인을 종속변수로 놓고 있으며 국가의 자율성을 너무 강조하며 심리적-정서적 차원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을 연구하는데 제 생각으로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가진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심리적-정서적 차원, 역사적 형성에서의 사회-문화적 상징체계의 작동과 사회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의 토양이 되는 의식-무의식의 차원을 다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3-2. 예를 들어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각국의 차이와 역사적 맥락을 추적하는데 도움을 주며 특정 시점에서 제도와 행위간의 균열(제도의 경로의존성에 의한 지속성이 발휘하는 결과와 제도의 비효율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기는 하지만 남/북 분단구조와 관련된 공통성과 차이를 분석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통일인문학의 목표는 현재의 구조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의 이해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민족적 공통성 또는 통일의 사회문화적 토양과 민족적 리비도의 역동성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3-3. 이런 점에서 저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양자의 결합뿐만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을 포괄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르디외의 아비투스라는 방법론만으로도 안 되고 프로이트주의의 현대적 버전들, 무의식과 욕망에 대한 논의들까지를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위가 단순히 과거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경험 속에서 형성된 관습이나 가치의 유제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욕망의 차원들을 추적해서 그것에 근거한 통일의 토양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물론 제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고민하는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아마도 답은 제가 아니라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닐까요. 선생님의 고민을 듣고 저도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덧붙여 장황하게 쓴 것은 저의 고민을 선생님과 함께 나누다보면 언젠가는 선생님이나 저나 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것이라고 점을 저는 기간의 선생님들과의 연구 작업 속에서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덧붙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려운 발제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많이 배웠습니다.